제2순환도로 778억 손실 보전

〈개통 이후 7년간〉

수요 예측 잘못·불리한 계약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 투입

광주시 국감…지하철 '눈덩이' 적자 대책도 촉구

광주시가 잘못된 수요 예측과 불리한 계약 체결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에 수백억원의 막대한 손실 보전금을 쏟아 부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광주 지하철의 부채와 운영 적자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무소속) 의원은 21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지난 2001년 이후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된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에 778억원의 손실 보전금을 사업시행자측에 지급했다"며 "건설 당시 통행량을 과다 산정하는 등 계약상 오류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시민 혈세를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민자도로에 들어간 재정보전금은 2005년 156억여원, 2006년 172억여원, 2007년 197억여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익률도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14.4~19.4%로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대구나 부산처럼 유료구간을 아예 시가 사들이거나 사업시행자와 운영수익률에 대한 과감한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다른 지역처럼 인수가 가능하면 인수에 나서겠다. 지난해부터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손실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지난 1997년 시작된 이 사업은 현 시점에서 생각하면 민자 유치를 위해 과다한 이윤을 보장했고 광주 인구가 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14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보니 이용률이 낮아지고 보전금액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인기(민주당) 의원은 이날 광주지하철의 부채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3천748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설부채가 2천796억원, 누적 운영적자는 952억원에 달한다며 "도시철도 때문에 광주시민 1인당 10만원꼴의 빚을 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의 적자 규모는 2004년 198억원에서 2005년엔 243억원, 2007년엔 256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데 비해 수송분담률은 1.9%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무임 수송과 낮은 운임으로 만성적자를 줄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과 운임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은 광주시의 도시구조는 방사형인데 지하철 1호선은 동-서노선으로 건설돼 효용성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다며 현재 추진중인 2호선 노선 문제를 거론했다.

원 의원은 "광주의 발전 축이 우산·월곡, 운남·신가·신창지구, 하남공단, 첨단지구 등 서부권으로 확산돼 이 곳에만 총 인구의 35%인 50만명이 분포하고 있는데 구 도심권만 순환하는 방식으로 2호선을 건설한다면 1호선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더욱 많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총장님은 요리중

광주대 김혁종 총장 '사랑의 카페'

6년째 주막 열어 불우 이웃돕기

광주대 김혁종(50) 총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김 총장이 21일 막을 연 광주대 '2008 대동제'에서 하루 동안 '총장과 함께하는 사랑의 카페'를 연 것. 김 총장은 이날 앞치마와 주방장 모자를 착용하고 닭발과 전어를 직접 구워 손님들에게 선사했다.

카페에는 삶은 돼지고기와 해물파전 등 다양한 음식이 푸짐하게 마련됐다. 대학 교무위원들도 자발적으로 손님 안내와 접대를 맡아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지난 2003년 총장 취임 이후 6년째 '총장 주막'을 열어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고 주막 한 켠에 모금함을 마련해 성금을 모으고 있다. 올해는 경제불황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성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태풍 피해 수재민에게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사정으로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랑의 카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우 광주대 총학생회장은 "광주대의 장학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닌데도 카페에서 모인 성금을 통해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카페에 오는 학생들은 총장님과 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축제 개회식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해 김 총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6년 째 가을 축제 때 '총장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대 김혁종 총장이 21일 양진선 총여학생회 회장과 전어를 굽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구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생명사랑 세미나

광주시 남구 정신보건센터가 청소년 우울증 자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 생명사랑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주시교육청과 정신보건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22일 오후 2시부터 시 교육청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남대 의과대학 이무석 교수가 '우울증 청소년! 왜 자살하는가?'를 주제로 청소년기 우울증의 양상, 우울증의 특성 및 증상을 알아보고 치료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소규모 옷가게 교환·환불 어렵다

광주지역 실태조사…영수증 발급도 잘 안돼

광주지역 소규모 의류점에서 의류 교환·환불과 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광주소비자시민모임(대표 공정화)과 함께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소규모 의류 판매점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공 대표는 '소규모 의류 판매점 이용 소비자문제 실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8월 한 달간 광주시 5개구 소규모 의류판매점 100곳과 소비자 156명을 대상으로 의류판매와 구매에 대한 '환불·교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가 환불을 받은 경우가 26.9%인 데 비해 환불 대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례가 39.7%,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가 22.4%나 돼 환불및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규모 의류판매점들은 업체마다 각각 다른 규정과 절차를 거쳐 환불·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은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에 하자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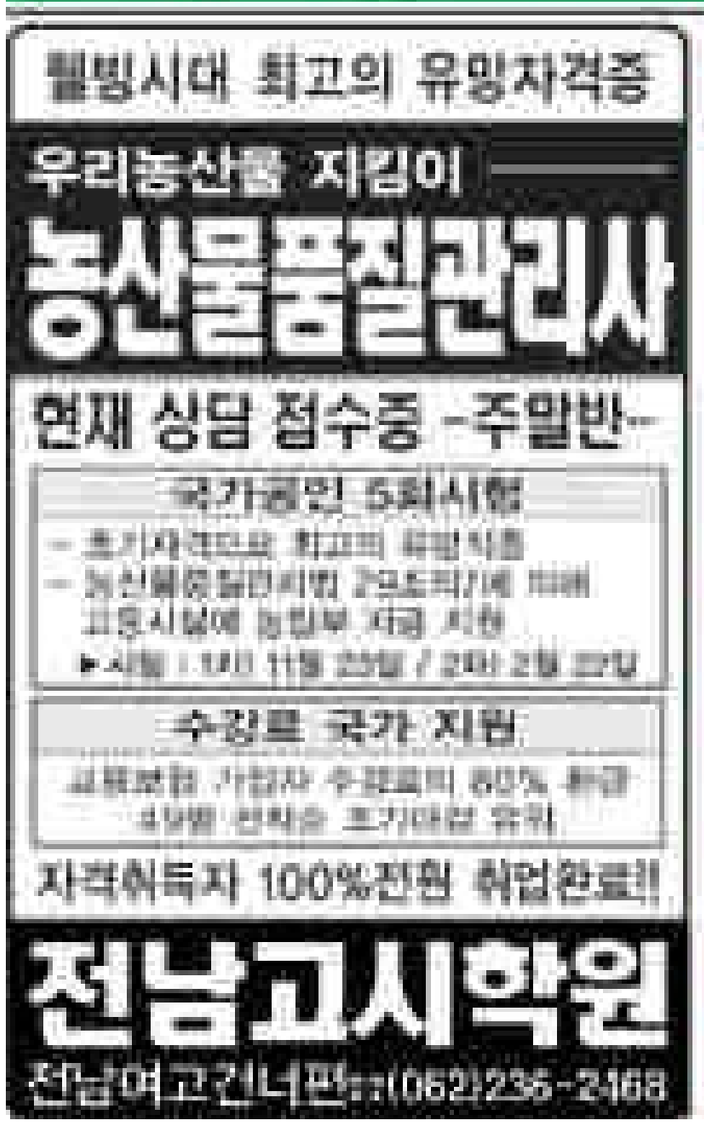
영수증 발급에 대해 판매자의 40%는 '요구하는 경우만 발급 해준다', 4%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소비자들은 67.9%가 '판매자가 발급해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 대표는 "교환·환불 등의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 스스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시청 민원실내에 소비생활센터(http : //sobija.gjcity.net)를 운영하고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김치 역사와 맛의 진실 市 책자 발간

광주시는 광주 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 마케팅을 돕기 위해 '한국의 맛, 광주 김치' 책자를 발간했다.

250쪽 분량의 이 책자는 광주 김치의 특성과 효능, 조리법을 비롯 역대 광주김치축제와 김치생산업체, 전라도 맛의 진실, 광주 김치맛집 등을 사진과 만화, 지도를 곁들여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김치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 설명도 함께 실었다.

시는 책자 발간을 위해 지난 4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종철 순천대 교수를 팀장으로 제작팀을 구성, 자료를 수집해왔다.

시는 이번에 발간된 4천권을 해외 마케팅에 활용하고 시내 주요 기관과 도서관, 관광홍보관, 호텔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